

보 도 자 료

발 신	제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
담당자	이서우 soulmuses@naver.com T. 070-8250-5007, M.010-9172-9942 정혜연 (Bella Jung) pr.mediacityseoul@gmail.com T. 070-4473-8858, M.010-4277-9997
총 매수	총 2매
보도협조일	받는 즉시 배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영상, 설치’ 등 국내·외 유명작가 다양한 작품 선보인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성황리에 폐막

- 미디어아트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버린 전시
- 미디어아트 다양성의 확장 “설치, 체험 작품의 대거 등장”
-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11월 4일(일) 55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가 가진 확장성과 복합성들을 드러내어 미술에 대한 관심을 풍성하게 확장시켜 주었다.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보관 두 곳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역 앞 대형빌딩, 을지로 한빛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도 영상 작품을 상영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서울 시내에서 역동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아트는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들을 위해 준비한 가이드북과 전시장 곳곳에 설치되었던 작품 설명 보드는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전시 주제인 'Spell on You(너에게 주문을 건다)'에서 파생된 층별 소주제들은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쉽게 표현해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개국 유명 미디어아트 작가 49명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청각을 울리는 아텔 압테세메드의 비디오 작품부터 진동의 울림에 의해 천장에서 풀이 떨어지는 로미 야키투브의 작품 그리고 전 세계를 이어주는 모리스 베나운의 세계로 통하는 터널까지 작품을 통한 다양한 시도는 어느 전시보다도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담아냈다.

또한, 미디어아트를 비디오아트로만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이번 전시는 신선한 충격이자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감성을 충족시켜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인터넷, 스마트 폰, SNS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미 미디어와 가까워져 있고, 미디어와 기술의 주문에 걸려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유진상 총감독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미디어아트가 동시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